

경제신문 스크랩 양식

헤드라인 (요약과 압축)	바이든 'AI 규제'에 호응한 尹 "글로벌 AI 질서 협력 필요"
기사링크	https://www.hankyung.com/politics/article/202307248891i
본문 (본문 내용 복사)	<p>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공지능(AI) 기술에 대한 규제 강화에 공감하며 글로벌 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. 윤 대통령은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.</p> <p>윤 대통령은 24일 트위터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23일(현지시간) 트위터 글을 리트윗하며 “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AI 선도기업 간 자발적인 약속은 제가 지난해 9월 뉴욕과 올해 6월 파리에서 제시한 디지털 비전과 뜻을 함께한다는 점에 기쁘게 생각한다”고 밝혔다.</p> <p>이어 윤 대통령은 “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대해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하기를 원한다”고 덧붙였다.</p> <p>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(현지시간) 알파벳(구글 모회사), 메타, 마이크로소프트(MS), 아마존, 오픈AI 등 7개 AI 기업 대표를 백악관으로 불러 AI 규제방안을 논의했다.</p> <p>이날 7개 AI 기업들은 AI로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넣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. 바이든 대통령은 AI를 활용한 정보 조작이나 가짜뉴스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“나는 실은AI”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.</p> <p>지난 5월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내년 대선 재출마 선언을 조롱한 바 있다. 1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NBC 방송의 ‘새터데이 나잇 라이브’(SNL)에 깜짝 출연한 것을 두고 ‘AI가 만든 가짜일 것’이라는 소문이 퍼지며 조작설이 제기되기도 했다.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“내가 맞다”며 논란을 일축했다.</p>

	<p>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에서 열린 ‘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’ 연설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이른바 ‘파리 이니셔티브’를 제안했다.</p> <p>당시 윤 대통령은 “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 규범 집행에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”이라며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(UN) 산하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.</p> <p>지난해 9월 미국 뉴욕대 ‘디지털 비전 포럼’과 UN총회 연설에서도 “전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심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질서의 정립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</p> <p>대통령실 관계자는 “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AI 선도기업들의 움직임은 디지털 기술과 관련한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”며 “다음달 열리는 한·미·일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의제가 다뤄질 수도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</p>
기사 내용의 수치화, 인사이트	
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	<p>파리 이니셔티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AI 역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면서 경제·사회·정치 분야는 물론 안보와 인간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돼 새로운 AI 윤리규범 확립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상황. - 철학·윤리적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의 의미를 조망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규범이 지향할 가치를 논의했다.
요약 및 의견 for 경제신문스크랩 스터디용	<p>핵심정보 : 빠른 AI 기술 발전으로 미국 바이든, 한국 윤석열 대통령 등 국제적인 규범 마련이 필요하고 논의 되어야한다고 어필한다.</p> <p>상세 :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(현지시간) 알파벳(구글 모회사), 메타, 마이크로소프트(MS), 아마존, 오픈AI 등 7개 AI 기업 대표를 백악관으로 불러 AI 규제방안을 논의했다. 2. 윤 대통령은 “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 규범 집행에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”이라며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(UN) 산하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.
적용할점 (현직자에게 할 질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I 규제가 AI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
연관기사 링크	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30621153600001

